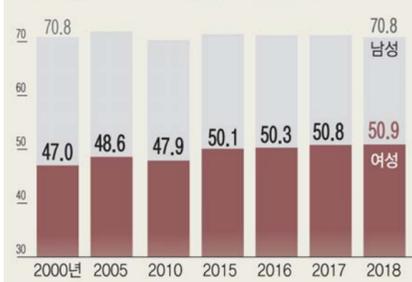


# 전체 여성 2명 중 1명이 일하지만...40%는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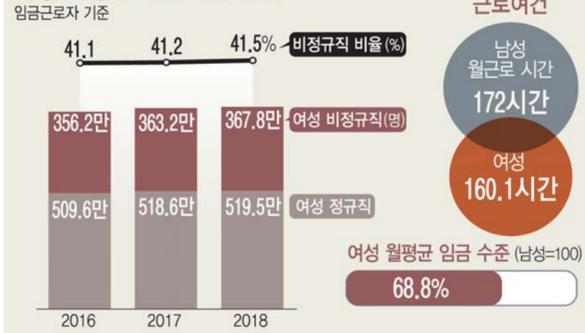
통계청·여가부, 2019 통계로보는 여성의 삶 발표

女고용률 50.8%...남녀 차이 20%p 아래로 떨어져  
368만명 비정규직...이중 시간제근로자가 197만명

여성의 삶 주요 지표 여성 고용률 단위: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전체 여성의 절반가량이 일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남성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

됐다. 임금 근로자 중 41%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남성에 비해 상용직 비중은 낮은 반면 임시직 비중은 높

았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1일 공동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고용률은 50.9%로 1년 전(50.8%)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남성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70.8%로, 남녀 간 고용률 차이는 19.9%포인트였다. 고용률의 남녀 간 차이는 2003년 24.7%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25~29세에서 70.9%로 가장 높았다. 45~49세(68.7%), 50~54세(66.8%), 30~34세(62.5%), 55~59세(6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세, 40~44세 고용률은 하락했지만, 다른 연령대에선 모두 올랐다. 특히 30~30세(51.9%→62.5%)와 55~59세(52.0%→60.4%)에서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면서 하락한 후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184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000명(0.8%) 늘었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1년 전(20.0%)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사유별로 보면 결혼이 34.3%로 가장 많았고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 돌봄(4.2%), 자녀교육(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고 40~40세(35.8%), 50~54세(8.7%), 15~19세(7.5%) 순이었다.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낮아졌지만, 근로 형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887만4000명이었는데 이중 367만80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남성(293만6000명)보다 74만 2000명 많은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여성(41.5%)이 남성(26.3%)보다 높았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60세 이상이 24.3%로 가장 높았고 50~59세(22.3%)에서도 20%를 넘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53.8%인 197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73만7000명으로 여성보다 123만4000명 적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 시간제 근로자 수가 2만4000명(3.2%) 감소할 동안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6만9000명(3.6%) 증가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7.4%였다. 남성(73.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준

으로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남성을 알지른 후 지속해서 올라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상용직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은 25.5%, 일용직은 4.5%였다.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남성(54.3%)보다는 낮았다. 임시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1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여성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이 23.2%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사무종사자(20.2%), 서비스 종사자(17.3%), 단순노무 종사자(15.0%), 판매 종사자(1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2%), 정치·경제조사 및 조립 종사자(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8%) 등이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남성보다도 여성이 높았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43.8%가

대졸 이상이었다. 이 비율은 고졸(39.7%)이나 초졸 이하(24.8%)보다 낮았던 2000년(19.2%)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고졸은 37.3%, 초졸 이하가 10.0%, 중졸이 8.8%였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여성의 평균 근무연수는 4.9년으로 남성(7.4년)보다 2.5년 짧았다. 월 근로시간은 160.1시간으로 남성(172.0시간)보다 11.9시간 적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4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66.1%, 건강보험에 69.0%, 고용보험에 66.0%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포인트, 0.2%포인트, 0.5%포인트 오른 수준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남녀 간 격차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 여가부와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주간(7월1일~7월7일)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하고 있다.

## '결혼 안한' 여성 가구주 148만...10년전보다 45.9% ↑

여성 가구주 622만 세대...2030년에는 750세대 넘어  
女1인가구 291만4000가구...10년 전보다 128.7% ↑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가구주가 10년 전보다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약 5만 가구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전체의 31.2%인 622만4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268만3000가구)보다 12.7%p 증가한 수치로 2030년에는 752만4000가구(34.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가구주 가운데 미혼 여성 가구주는 23.9%인 148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5%, 10년 전보다 45.9% 증가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미혼 여성 가구수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8.0%), 40대(16.6%), 50대(7.8%) 순이었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40대는 2.2배(13만7000명), 50대는 2.8배(7만6000명), 60세 이상은 3.9배(5만1000명) 증가했다.

여성 1인 가구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는 590만 7000가구로 전체 가구(1997만1000가구)의 29.6%를 차지했다.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 중 49.3%인 291만4000가구로 지난해보다 7만1000가구 늘었다. 10년 전보다는 128.7%(161만 가구)가 증가

했다. 2017년까지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많아졌다.

올해도 같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4.4%p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29.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16.2%), 20대(16.1%)가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1인가구는 지난해(15.9%)보다 0.2%p 늘어나며 20대 1인가구를 앞질렀다.

60대 이상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은 46.1%로 60대 이상 남성의 1인가구(20.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통계청은 2035년 70대 이상의 여성 1

인 가구 비중이 47.9%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 봤다.

올해 여성의 인구는 총인구(5170만9000명)의 49.9%에 해당하는 257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뜻하는 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4년에는 97.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로 보면 50대까지는 남성 인구가, 60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인구가 더 많았다. 20대의 성비는 113.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80세 이상은

48.5명으로 가장 낮았다. 2017년 외국인 여성인구는 63만 3584명으로 외국인 총인구(147만 9247명)의 42.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만

5293명(5.0%) 늘었다. 20대(16만 8822명)가 여성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30대(14만3153명), 50대(10만6017명)가 뒤따랐다.

귀화·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이혼 다문화가구원(96만3801명) 중 여성 가구원의 수는 50만 5918명(52.5%)으로 과반을 넘겼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